제25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김은실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제: 초국가적 문화현상으로서의 겨울연가와 새로운 문화수용

-번역가로서의 아시아 여성의 부상

일시: 2005년 10월 4일 (12 : 00 – 14 : 00)

*강연 내용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문화와 심리와 연결된 몸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오랫동안 여성이 재생산, 자궁, 모성애 등과 연결되어 몸을 통해 표현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학에서는 70년대부터 여성의 몸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강사는 여성의 몸이 국가 권력, 지식 등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오면서, 한 사회에서 사람, 시민, 국민,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계를 재현하는 미디어에 있어서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 연구해 왔다. 사람의 성별, 인종 등의 다양한 면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어떻게 역사와 정치 등의 사회 문화적 현상들이 연결되면서 여성이 시민, 국민이 되기도 하고 비국민이 되기도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강사는 국제여성학자로써 오차노미즈 대학에 초청되어, 일본인과 재일한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겨울연가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담론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과거와는 달리 겨울연가 붐으로 한국이 일본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받아들여 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 드라마를 통해 일본사람들은 한국에서 오래된 일본을 발견하고, 한국인들은 반대로 일본에서 오래된

한국을 발견하면서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뒤섞는 노스텔지어, 데자부 현상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강사는 많은 재일 한국인들이 겨울연가를 통해 역사성, 한국의 정서 등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일본에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데자부 현상을 느끼는 것을 확인하면서 겨울연가의 연구를 결심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대학교수가 한국드라마 팬이라는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커밍아웃을 선언하는 정도의 파장을 가진 위험한 발언인데, 이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1. 대중문화는 학문적 재생이 되지 않는다

2. 드라마를 본다는 것은 대단히 시간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드라마 시청이 곧 교수의 자질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3. 한국드라마는 일본학자들에게 복잡한 심정을 불러일으킨다. 우선, 한국드라마는 아줌마 드라마인데, 지적이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지식인 여성이 아줌마와 똑같이 한국드라마에 빠져든다는 것은 아줌마와 지식인 여성을 동격으로 만든다고 하는 문제를 가진다. 둘째로, 대학교수가 한국드라마를 봤다고 하면, 아줌마들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간의 역사논쟁이나 다른 복잡한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식인들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 문화현상이나 사회현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많은 일본 지식인들이 역사나 정치 등의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문화적인 것, 현재의 한국을 바라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데 반해, 일본의 아줌마들은 한층 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영역에서 한국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 강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의 아줌마가 진정한 한국의 우호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런 아줌마 세력이 대중문화를 통해 이루어진 심리적,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기존의 한일관계를 어떤 식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을지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다.

강사는 대중문화의 초국가성(Trans-nationality), 탈식민지성, 로맨틱한 관계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팬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초국가적 드라마는 존재하지 않지만, 드라마에 초국가성은 존재한다. 겨울연가는 느린 템포를 지닌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겨울연가를 넘어서는 세계, 자신의 첫사랑이나 과거로의 여행 등에 빠져들게 만든다. 시청자들은 집단적으로 볼 때는 드라마를 비판하지만, 혼자 볼 때는 눈물을 흘리며 드라마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들이 드라마를 넘어서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 첫사랑에 대한 향수, 추억 등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기 때문이다.

겨울연가가 중요한 것은 한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많은 일본주부들이 한국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성수대교 사건, 북한 문제 등), 역사문제 등에 관한 정치적인 여론의 형성 등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온 과거에 비해, 정제되고 아름다운 언어, 환상적인 배경의 겨울연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 일본 아줌마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위에 관계의 이동, 실천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게 된다.

초국가적으로 소비되는 글로벌 드라마는, 국민과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도 국가를 만든다.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와 일본, 한국 등에서 겨울연가의 인기가 많은 것은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 할리우드 영화와 일본 영화가 그 주를 이루던 시장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수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서구와 아시아,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기존의 역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겨울연가는 드라마 수용에서 국민보다 젠더 범주가 더 강력함을 보여주었다. 일본 여성들은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자신을 '일본인' 보다는 '여성'으로 정체화하고, 이때 이들의 국가는 일본이나 한국이 아니라 '욘사마의 나라'이다. 드라마의 시청자들은 드라마와 자신을 직접적인 관계 속에 위치시켜, 드라마 주인공이 자신에게 직접 말을 하고 있다고 느끼며 겨울연가를 시청한다. 또한 겨울연가는 대단히 아름다운 드라마이다. 눈이라는 소재를 통해 나타나는 드라마는 대단히 로맨틱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시청자들을 매혹시킨다.

제작자의 의도가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드라마는 없다. 성별, 나이, 지역, 계급, 성 정체성 등 수용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텍스트는 다르게 수용된다. 아시아 각국에서 한류의 효과는 단일하지 않으며, 한 나라 안에서의 한류의 영향력 역시 계층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다.